



첫 주말 유세 수도권 잡기

여야 지도부 수원 총출동

휴일에도 7·30 재보선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경기 수원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합동유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이날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수원병 김용남, 수원을 정미경, 김무성 대표, 수원정 임태희 후보와 함께 합동유세하고 있고(왼쪽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정 박광은, 수원병 손학규, 수원을 백혜련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폭탄 vs 안심마을 vs 무상복지

<새누리>

<새정치>

<진보정당>

광주·전남 재보선 후보 5대 공약 비교해보니

광주 광산을-문화시설 확충·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순천·곡성-의과대학 유치·골목경제 살리기·교육복지

나주·화순-예산 1조원 시대·친환경 농업도시 육성

담양·함평·영광·장성-경제 활성화·대마산단 살리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선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이 일제히 주요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무상교육 확대와 전기·가스·물 무상 공급 등의 무상 복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 광산을=광산(을) 선거구는 신도심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도심 팽창에 따른 지역민들의 교육·문화·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담긴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문화예술지원센터 및 열린도서관 설립 등 광산지역의 교육과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과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조기 완성을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경찰출신단체 신도심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범죄예방 안심마을 조성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수완종합체육관 건립과 고속도로 첨단 진출입로 확장, 광산구 신도심 내 방송국 송신소 이전 등 지역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민원사업 해결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의료·철도·가스 등 공공부분 사유화 저지, 전기·가스·물 무상공급, 광주 제2고속터미널과 급행 노선버스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의당 문정은 후보는 의료비 격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사교육과 학벌 사회 해소를 위한 교육혁명, 핵없는 나라, 3대 특권없는 국회, 청년 삶 지원하는 복지국가 건설 등을 5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양정서 후보는 '안전 대한민국' '함께하는 교육' '다같이 웃는 복지' '오랫동안 산업경제' '여성사회 경제활동 보장' 등 5대 정책비전을 내놓았다.

◇순천·곡성=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주요 핵심공약은 전남 동부권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남 동부권 대개조 사업과 대기업 유치 추진, 청년일자리 확보 등이다. 아울러 의과대 유치 추진 등 지역현안 적극 해결 등을 위한 호남 예산 과격 지원 등도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노(盧)의 남자'로 불리는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는 생태·문화·관광도시 순천·곡성 건설, 청년·어르신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한민국 도농(都農)교류허브도시 곡성·순천 건설, 안전하고 행복한 곡성 순천,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핵심공약으

로, 노동자·농민이 잘사는 순천·곡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전남 동부권의 문화·관광·교육 중심도시 순천, 섬진강 유역환경정신 시설 등 곡성 발전 프로젝트, 교육복지로 살기좋은 순천·곡성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무소속 김동철 후보는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개설, 빈부 갈등 줄이는 입법 활동, 청년창업활동 지원 법안, 고령사회 농촌복지모델 개발, 교육경쟁력 강화를 5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소속 구희승 후보는 대부분 지역내 현안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순천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남 동부권 대개조 사업과 대기업 유치 추진, 청년일자리 확보 등을 통한 전남 동부권 정부기관 통합청사 활용, 순천만 정원의 스카이뷰 원도심까지 연장 운영,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용을 통한 승주·곡성 가공농산물수출 전진기지화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나주·화순=새누리당 김중우 후보는 나주·화순 1조원 예산 시대, 나주·화순 농촌노인복지기금 200억원 조성, 나주·광주·화순 도시철도 건설, 다문화복지 및 사회통합회관 건립, 농산물 국가책임판매법 입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는 목사골

나주와 혁신도시를 연결,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5대 핵심공약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도시 건설,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청정농업 실현, 화순 백신클러빌 산업화 구축, 화순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강백수 후보는 화순 의료관광 매카 조성, 나주·화순을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 명문 교육도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새누리당 이종호 후보는 영산강 권역을 미래형 복합영농기반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전동차 R&D 센터 건립, 장애인 전용 구강보건 이동식 진료차량 지원, 함평 무지개 마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쉼터 신축, 축령산 국립습지 조성, 함평 레저 힐링 야영장 조성 등도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후보는 농수축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복지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수산업 살리기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친환경 농업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해 저비용·고효율·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군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적합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농어촌교 육여건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 강화 등도 주요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 “과도한 개입” 야 “당연한 조치”

새누리 권은희 비방 트윗 광주선관위 삭제 통보 놓고 공방

재산축소 의혹도 이틀째 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를 놓고 연일 공방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식 트위터에 게재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에 대한 비판 글을 광주선관위가 최근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과도한 개입이라며 경위를 추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의 '위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권 후보에 대한 위증 여부를 분석해보니 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왜 선관위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권 의원에 대해 아직 위증이란 게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새누리당이 트위터에서 '위증이다, 보은공천이다'라고 한 것은 당과 후보자를 동시에 비방한 것"이며

이는 허위사실 공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트윗의 위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지기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쨌든 광주선관위는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삭제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재심을 요청한 만큼 오는 월요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20일 권 후보가 남편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는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직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서 하등 문제가 안 되고 적법하다고 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선관위 23일까지 재보선 후보자 TV토론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20일 오전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MBC)를 시작으로, ▲22일 나주·화순(KBS1TV) ▲23일 순천·곡성(KBS1)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의 공약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TV토론회는 지난 19일 광주 MBC를 통해 중계방송됐다.

TV중계를 통한 유권자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모바일 앱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최원일기자 cki@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유망축제]

UN 과 함께하는 **물축제**
 UNICEF
 전남진 정음물축제 운영수익금은 UNICEF를 통하여 세계 물기근국가 어린이에게 사수 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

제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AQUA FESTIVAL

2014. 8.1(금) ~ 8.7(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주최 | 강진군 | 주관 | 정남진 정음 물축제 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문의 | 강진군 문화관광과 061-860-0380,0828

www.jhwater.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홍, 불 그리고 인간
제42회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The 42nd Gangjin Celadon Festival & The Korea - China - Japan Ceramic Culture Festival

2014. 7.26.(토) ~ 8.3.(일) - 9일간
 강진청자박물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보령양조(주), HITEJINRO, 도원학

www.gangjin.go.kr
 061)430-3331~4